

구인두 암의 수술적 치료

Surgical Treatment of Oropharyngeal Cancer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김 민 식

구인두에 발생하는 암종은 해부학적으로 성격이 다른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발 병소에 따라 종양이 자라서 파급되는 경로가 각기 다르고 주위의 림프절로 전이가 되는 양상도 다양하다. 또한 이러한 각각의 원발 병소에 대한 접근이 해부학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고 원발 병소와 주위 조직과의 3차원적인 연계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 이로 인하여 종양의 절제 시에 충분한 절제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후가 나쁘게 된다.

이러한 구인두 암종의 치료로는 아직까지는 광범위한 종양의 절제 후 방사선 치료와 항암 요법을 병합하여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Takagi 등(1992)은 이러한 병합 치료가 국소 및 주위 림프절 치료(Locore-

gional control)에는 효과가 있으나 원격 전이에 의한 사망 때문에 생존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구인두는 연하의 생리적 과정 중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데 구인두 암종은 대부분의 경우 진행된 제 III, IV 병기에서 발견되어 외과적 치료 시 광범위한 절제를 필요로 하여 수술 후에 발생하는 결손 부위에 따른 기능적 재건도 수술 후 환자의 재활과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저자는 이러한 구인두 암종의 특성과 외과적 치료 시에 고려해야 할 요소, 중요한 점을 검토하고 구인두 암종에 대한 저자의 경험을 토론하고자 한다.